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3)*

—권8, 18:05~19:23 부분을 중심으로—

이병기**

요 약

이 글은 『瑜伽師地論』(Yogacārabūṃmi) 권8의 18, 19장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권8의 18장 5행부터 19장 23행까지의 점토 석독 구결의 해독 방안을 이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논의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1. 『유가사지론』 권8의 18, 19장의 내용

이 글은 『瑜伽師地論』(Yogacārabūṃmi) 권8의 18,19을 중심으로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권8의 18장 5행에서 19장 20행까지의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권 8은 제3~5지 윤회의 세계를 논하는 有尋有伺等三地(권4-권10) 중 雜染施設建立의 일부에 해당한다. 雜染施設建立은 ㉠煩惱雜染, ㉡業雜染, ㉢生雜染의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5년 11월 19)에서 강독하고 논의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강사.

三種雜染으로 말미암는데 각각의 雜染은 ①自性, ②分別, ③因, ④位, ⑤門, ⑥上品, ⑦顛倒攝, ⑧差別, ⑨過失의 9가지 연고로 말미암는다. 이 두 가지 원인을 조합하면 27가지가 되는데 본고의 대상은 業分別(09:21-20:20)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業分別은 ‘補特伽羅相差別’과 ‘法相差別’의 두 가지 차별로 말미암는데 두 차별에는 또 각각 10가지 善業道와 不善業道가 있다 『瑜伽師地論』 권 8의 18장 5행은 補特伽羅相差別에서 10가지 ‘不善業道’를 떠난 善業道에 대하여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瑜伽師地論』 권 8의 19장 5행부터는 다시 法相差別의 不善業道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2. 해독안

이 글에서 점토 석독 구결의 해독안은 다음과 같이 이전 논문의 틀에 따라 A부터 E까지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A: 한문 원문 순서대로 각 한자에 현토된 점토의 위치 및 형태 표시
- B: A의 점토구결을 자토구결로 바꾼 것
- C: 우리말 어순에 맞게 고치고, 생략된 토를 보충하여 자토석독 구결의 형식으로 바꾼 것
- D: C의 문법 형태를 고려하여 현대어로 직역한 것
- E: 한문 원문에 대한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번역

<유가08 18:05-06>

- A: 復次[23(·)]白品一切[33(·)]翻[33~43(∕)]前[34(·),43(·),지시선(∕)]¹⁾
應知[42(∖),53(∕)]所有[33(∕),42(·)]差別[34(·)]我[33(·)]今[32~33

(·)]當說[+41~51(·)]

B: 復次[→]白品一切[1]翻[↘1 印]前[乙, ㄴ]應知[ノㄱ七, x↗²⁾]所有[↘1, 七]差別[乙]我[1]今[X³⁾]當說[x 1]

C: 復 次→ 白品 一切1 前乙ㄴ 翻↘1 印 知ノㄱ{應}七x↗ 有↘1 所七 差別乙 我1 今X 當 說x 1

D: 또 다음으로 白品⁴⁾ 一切는 앞을 뒤집는 것이니, 알아야 할 것이니, 있는 바의 차별을 나는 이제 반드시 말하겠다.

E: 다음에 흰 품류의 온갖 것은 앞의 것과는 반대의 것인 줄 알아야 하리니, 모든 차별을 내가 이제 설명하겠다.

<유가08 18:06-07>

A: 謂翻欲邪行[34(·), 11~21(-), 42(·)]中[44(·)]諸梵行者[51(·)]者[=23~33(·)⁵⁾]此[33(·)]是捨句[22~32(·), 55(·)]

B: 謂翻欲邪行[乙, ㅅ, 七]中[+]諸梵行者[1]者[x↗1]此[1]是捨句

- 1) ‘前’에는 중간 부분에 세로로 ‘32’에서 ‘34’를 잇는 긴 선이 있다. 이 선은 <유가08 17:17>의 ‘六’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기능을 알 수 없다. “通慧[51(·)]者[23~33(·)]謂第六[34(·), 43(·), 54~55(·)]” 이 두 곳의 공통점은 ‘乙 ㄴ’에 해당하는 [34(·), 43(·)]가 현퇴되어 있다는 점이다.
- 2) 서민욱(2005:130, 부록83)에서는 사선을 ‘↘1’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53(·)](↘)와 관련지어 ‘↘1 ↘’로 해독하였다.
- 3) 서민욱(2005:31)에서는 위치를 [32~33]으로 보고 ‘ㅁ’으로 해독했으나, 장경준(2005:303)에서는 위치를 [32~42]로 보고 ‘ㅈ’으로 해독하였다. 자토 석독구결에서 ‘ㅅ’에 현퇴되는 구결은 크게 ‘↘1, ㅁ, ㅈ’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ㅅㅁ’은 『유가사지론』에만 5회 보이고 뒤에 수식관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명사상대어구가 나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치는 [32~42]와 구별되지만 유일례이고 기능상의 특징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미해독으로 남겨 둔다.
- 4) 白品은 10장 6행부터 18장 4행까지 나열한 麤惡語, 貪欲, 邪見 등과 반대가 되는 ①離殺生, ②離不與取, ③離欲邪行, ④離妄語, ⑤離離問語, ⑥離麤惡語, ⑦離綺語, ⑧離貪欲, ⑨離瞋恚, ⑩離邪見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오른쪽 점이 글자의 획을 피하여 약간 위치해 있다. 서민욱(2005)에서는 이를 [23~33(·)#23~33(·)]로 표시하였다.

[11, 5]

- C: 謂 欲邪行乙 翻(ㄴ)ㄷㄷ 中十 諸 梵行者(11)1{者}x入1 此1
是 捨句11ㄱ
- D: 즉 欲邪行을 뒤집는 가운데에서 모든 梵行者다 함은, 이는 捨句
이며
- E: 음욕의 사편 행과 반대되는 것 중에서 모든 맑은 행을 행하는 이
라 함은 이는 바로 총구이며,

<유가08 18:07-08>

- A: 當知[51(·)]此[33(·)]由三種清淨[34(·),22(·)]而[43(·)]得[역독선]清
淨[34(·),33~43(/),+11(·)]
- B: 當知[1]此[1]由三種清淨[乙, 3]而[ㄴ]得清淨[乙, ㄴ1 ㄱ, 1]
- C: 當(ハ) 知(ㄴ)1 此1 三種 清淨乙 由 3 而 ㄴ 清淨乙 得 ㄴ1 ㄱ1
- D: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는 세 가지 清淨을 말미암아 清淨을 얻는
것인 줄.(것이다).
- E: 이는 세 가지의 깨끗한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줄 알아
야 하리니,

<유가08 18:08-09>

- A: 一時分清淨[31(·)]二他信清淨[31(·)]三正行清[31(·),51(·)]⁶⁾淨
- B: 一時分清淨[人]二他信清淨[人]三正行清[人, 1]淨
- C: 一 時分清淨人 二 他信清淨人 三 正行清淨人(11)1
- D: 첫째 時分清淨과 둘째 他信清淨과 셋째 正行清淨이다.
- E: 첫째는 시분이 깨끗함이고, 둘째는 다른 것의 믿음이 깨끗함이고,
셋째는 바른 행이 깨끗함이다.

6) 지시선은 보이지 않는데 ‘淨’자에 현토되어야 할 점토들이 그 앞 ‘清’자에 현
토되어 있다. 지시선에 의존할 환경도 아니어서 단순한 잘못으로 여겨진다.

<유가08 18:09-10>

- A: 盡壽[뽁침선(43~44,/)]行[43(ㅣ)]故[55(·)]久逮[45(·)]行[43(ㅣ)]故
[51(·)]者[23~33(·)]此[33(·)]顯[역독선]時分清淨[34(·),55(:)]
- B: 盡壽行[xㄴ]故[ㄱ]久逮[ㅋ]行[xㄴ]故[ㅣ]者[xㄴ]此[ㅣ]顯時分
清淨[乙,xㄱ]
- C: 盡壽 行xㄴ{故}ㄱ 久逮ㅋ 行xㄴ{故}(ㅣ)ㅣ{者}xㄴ 此ㅣ 時分
清淨乙 顯xㄱ
- D: 盡壽하게 行하는 까닭이며 久逮히 行하는 까닭이다 함은, 이는
時分清淨을 나타내는 것이며
- E: 목숨이 다하기까지의 행과 몹시 오랜 동안의 행 때문이라 함은
이는 시분이 깨끗함을 나타내며,

<유가08 18:10-11>

- A: 淨處[22~32(·),2자합부?]雪[43(ㅣ)]故[21(·)]名[54(·)]⁸⁾清
[53(·),55(·)]无違越[33(/),43(/)]故[21(·)]名[54(·)]淨[53(·),지시선
(\)]此[53(:)]二[33(·)]掄[45(·)]顯[역독선]他信清淨
[34(·),51(·)#51(:)]
- B: 淨處[ㅣ]雪[xㄴ]故[ㄴ]名[ㅌ]清[ㅊ,ㄱ]无違越[ㅍ,ㅍ]故[ㄴ]名
[ㅌ]淨[ㅊ]此[xㅊ]二[ㅣ]掄[ㅋ]顯他信清淨[乙,xㅣ]

7) 서민욱(2005)에서는 '[43(/)]'에 대하여 'ㅍㅌㄴ'로 해독하고 [43(ㅣ)]에 대하여는 'xㅌㄴ'로 해독하였다. 실제로 'ㅍㅌㄴ{故}'는 7회 출현하지만 'ㅍㅌㄴ{故}ㄱ'는 한 번도 출현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환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토석독 구결에서 'ㅍㅌ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점토 석독 구결 자료가 자토석독 구결 자료보다 이전 자료이고 '동명사어미+조사'가 '동명사어미+의존명사+조사'보다 선행한다는 점, 그리고 [43(·)]이 'ㄴ'라는 점에서 우선 '[43(/)]'에 대하여 'ㅍㅌㄴ'로 해독하기로 한다. 그렇지만 자토구결 자료의 해독에 있어서 이미 'ㄴ' 통합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8) [54(·)]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사진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 C: 靜處 ㄹ 雪x ㄴ {故} ㄴ 名 ㄴ 清 ㄴ {ㄴ} ㄴ 違越 ㄴ ㄴ 无 ㄴ ㄴ {故} ㄴ
 名 ㄴ 淨 ㄴ x ㄴ 此 ㄴ ㄴ ㄴ 捲 ㄴ 他信清淨 ㄴ 顯 x ㄴ
- D: 靜處가 깨끗한 까닭으로 일컬어 清이라고 하며 어긋남이 없는
 까닭으로 일컬어 淨이라고 하니, 이 둘은 통틀어 他信清淨을 나
 타낸다.
- E: 다툼의 곳이 싸뜻하기 때문에 맑다 하고 어김이 없기 때문에 깨
 끗하다 하니, 이 두 가지는 다 다른 것의 믿음이 깨끗함을 나
 타내는 것으로서,

<유가08 18:11-12>

- A: 此[42(·)]中[=44(·)]或有[52(·)]清[22~32(·),+15(·),구결자(ㄹ 口)]
 而[43(·)]非淨[42(-),52(/),경계선]應作[역독선]四句
 [34(·),42(·),51(·)]
- B: 此[ㄷ]中[+]或有[ナ]清[ㄹ,口]而[ㄴ]非淨[X,x ㄴ]⁹⁾應作四句[乙,ノ
 ㄷ ㄷ, ㄴ]
- C: 此 ㄷ 中+ 或 有ナ(ㄴ) 清ㄹ口 而 ㄴ 淨 非Xx ㄴ 四句 乙 作ノㄷ
 {應} ㄷ ㄴ
- D: 이 가운데에 혹 있다, 清이고 淨 아닌 것이니, 四句를 지어야 할
 것이다.

9) 서민욱(2005)에서는 <유가사지론> 권8에서 ‘42(-)’가 유일한 예로 나타나고
 (유가 권 5에는 ‘x ㄷ ㄷ’로 판독되는 [42(-)]이 여러 번 나타난다.) 마땅한 해독
 안이 없기 때문에 경계선의 모양을 바로 잡기 위한 수정선으로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구결을 나타내는 선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아래의 사선
 을 [= (+)52(/)#52~53(/)]으로 보고 “ㄴ ㄴ ㄴ”로 판독하였다. ‘42(-)’가 “A ㄹ 口
 而 ㄴ A’ 非-” 구문에 필요한 것인지, ‘或 有ナ(ㄴ)’의 도치 구문에 필요한 것
 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전자의 유형은 자토 석독 구결 자료에 보이지 않고,
 후자의 구문에서도 ‘-ㄴ ㄴ(ㄴ)’ 앞에 특별한 어미 구조체가 나오는 일이 없어
 현재로서는 미상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E: 이 중에는 혹은 맑으면서도 깨끗하지 아니함이 있으므로 네 가지 구절을 지어야 된다.

<유가08 18:12-13>

A: 初句[51(·)]者[23~33(·)]謂實[33(·)]毀犯[53(/),경계선]於諍[44(·)]得勝[54~55(·),2자합부]

B: 初句[]者[x∧1]謂實[1]毀犯[↘1↗]於諍[+]得勝[xㄴ]

C: 初句(11)1{者}x∧1 謂 實1 毀犯↘1↗ {於}諍+ 得勝xㄴ

D: 初句다 함은, 즉 실은 毀犯하고도 다툼에서 得勝하는 것이며

E: 첫째 구절은 실제로 범하여 다툼에서 이기게 됨이요,

<유가08 18:13-14>

A: 第二句[51(·)]者[23~33(·)]謂實[33(·)]不犯[53(/)]於諍[44(·)]墮負[54~55(·)#55(·)]

B: 第二句[]者[x∧1]謂實[1]不犯[↘1↗]於諍[+]墮負[xㄴ]

C: 第二句(11)1{者}x∧1 謂 實1 不犯↘1↗ {於}諍+ 墮負xㄴ

D: 第二句다 함은, 즉 실은 不犯하고도¹⁰⁾ 다툼에서 墮負하는 것이며

E: 둘째 구절은 실제로 범하지 아니하여 다툼에서 지게 됨이요,

<유가08 18:14-15>

A: 第三句[51(·)]者[23~33(·)]謂實[33(·)]不犯[35(·)]於諍[44(·)]得勝[35(·),54~55(·)#55(·)]

10) 四句의 설명에서 不犯과 毀犯여부와 勝負 관계에 대한 면밀한 의미 고찰이 필요하며 犯의 대상이 淸淨인지, 이기고 지는 대상과 같은 것인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또한 ‘↘1↗’와 ‘(↘)ㄴ’가 같은 의미인가 다른 의미인가? 다르다면 형태적 고찰과 함께 정확한 문맥 파악에 따른 설명도 필요하다. 이러한 설명이 충족될 때 이 구문에 대한 해독이 완전해질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후고를 기다리기로 한다.

- B: 第三句[1]者[x入1]謂實[1]不犯[ㄱ]於諍得勝[ㄱ, x ㄱ]
- C: 第三句(11) 1 {者}x入1 謂 實1 不犯(ㄱ) ㄱ {於}諍(+) 得勝(ㄱ)
ㄱ x ㄱ
- D: 第三句다 함은, 즉 실은 不犯하고 다툼에서 得勝하고 하는 것
이며
- E: 셋째 구절은 실제로 범하지 아니하여 다툼에서 이기게 됨이요,

<유가08 18:15>

- A: 第四句[51(·)]者[23~33(·)]謂實[33(·)]毀犯[35(·)]於諍[44(·)]墮
負[35(·), 51(·)]
- B: 第四句[1]者[x入1]謂實[1]毀犯[ㄱ]於諍[+]墮負[ㄱ, x 1]
- C: 第四句(11) 1 {者}x入1 謂 實1 毀犯(ㄱ) ㄱ {於}諍+ 墮負(ㄱ) ㄱ
x 1
- D: 第四句다 함은, 즉 실은 毀犯하고 다툼에서 墮負하고 하는 것이다.
- E: 넷째 구절은 실제로 범하여 다툼에서 지게 된 것이다.

<유가08 18:16>

- A: 不以愛染身[34(·), 24(·)]觸[역독선]母邑[34(·), 43(1)]故[21(·)]名
[54(·)]遠離生臭[53(·), 55(·)]#54~55(·)]¹¹⁾
- B: 不以愛染身[乙, ㄱ]觸母邑[乙, x ㄱ]故[ㄱ]名[ㄱ]遠離生臭[ㄱ, x ㄱ]
- C: 愛染身乙 {以} ㄱ 母邑乙 觸 不(多) x ㄱ {故} ㄱ 名 ㄱ 遠離生臭 ㄱ x ㄱ
- D: 愛染身을 써 母邑¹²⁾을 접촉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遠離

11) 장경준(2005)에서는 “[54~55(·)]”로, 서민욱(2005)에서는 “[54~55(·)]#55(·)]”로
판독하였다.

12) 모읍(母邑): (matrgrāma) 摩呬理伽羅摩 the community of mothers, womankind.
<부다피와 불교용어사전(http://www.buddhapia.com/_service/Dicsearch/term_dic_popup.asp) 참고.> 여기서는 ‘여성’의 의미로 파악된다.

生臭라고 하며

E: 애욕의 더러운 몸으로써 모음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생취를 멀리 여윈다고 하며,

<유가08 18:17>

A: 不行兩兩交[24(\\),42(·)]會[지시선(/)]鄙事[34(·),43(l),2자합부,역독선-각주¹³⁾]故[21(·)]名[54(·)]速離婬欲[53(·),55(:)#54~55(:)]

B: 不行兩兩交[ノ今,七]會鄙事[乙,xㄴ]故[ノ]名[下]速離婬欲[ㄱ,xㄴ]

C: 兩兩 交會ノ今七 鄙事乙 行(ㄴ尸) 不(多)xㄴ{故}ノ 名下 速離婬欲ㄱxㄴ

D: 兩兩이 交會하는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까닭으로 일컬어 速離婬欲이라고 하며

E: 두 사람이 성교하는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음욕을 멀리 여윈다고 하며,

<유가08 18:18-19>

A: 不[역독선]以[역독선]餘[33(·)]手觸等[33(/)]方便[34(·),24(·)]而[43(·)]出[역독선]不淨[34(·),21(·)]故[41(·)]名[54(·)]非鄙[53(·),55(:)# 54~55(:),2자합부]

B: 不以餘[ㄱ]手觸等[ㄴㄱ]方便[乙,이]而[ㄴ]出不淨[乙,X]故[ㄷ]名[下]非鄙[ㄱ,xㄴ]

13) 이승재외(2005)에서는 이를 경계선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事[43(l)]’이나 ‘故[21(·)]’이 선을 경계로 자리매김하는 점토가 아니므로 경계선으로서의 역할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점토 『瑜伽師地論』에서 역독선은 보통 술목구조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한자에 오른쪽 아래로 호를 그리는데 목적어 역할을 한자에 왼쪽 위로 호를 그리는 것도 같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인 역독선과 용어상의 혼란이 문제라면 ‘상위 술어와 호응함’이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C: 餘₁ 手觸 等₁ 方便乙 {以} ; 而₁ 不淨乙 出 不(多)X 故₁
 名₁ 下 非鄙₁ X₁가¹⁴⁾

D: 남은 手觸 등의 方便을 써 不淨을 내지 않으니, 그러므로 일컬어
 非鄙라고 하며

E: 달리 손으로 대는 등의 方便으로써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지 않
 기 때문에 비천한 애욕이 아니라고 하며,

<유가08 18:19>

A: 愛¹⁵⁾願[15(·),2자합부]受持[2자합부-역독선]梵行[34(·),43(1)]故

14) 자토 석독 구결 자료에서 명칭을 지정하는 구문에서 ‘-₁(또는 :)’와 ‘-₁’ 사
 이에 ‘-₁’가 주로 나타난다. 단지 ‘: -₁’가 『구역인왕경』에 5회, ‘: -
 (·) -₁’가 『구역인왕경』에 2회, 『유가사지론』에 2회, 『화엄경소』에 각 1회,
 ‘-₁ -₁’가 『금광명경』에 1회 나타날 뿐이다. ‘: (·) -₁’가 나타나는 경
 우 후행문에는 모두 ‘-₁’가 나타난다. 점토 석독 구결 자료 『瑜伽師地論』
 권 5,8에서 ‘名₁ NP’ 구문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은 출현 빈도를 보
 인다. 즉 『瑜伽師地論』 권 8 뒷부분에서부터 연결어미 ‘-₁’와 관련하여서는
 ‘(·)’이 ‘(:)’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결어미 ‘1’의 경우도 같은
 부분에서부터 잠깐 ‘(:)’으로 나타나다가 다시 ‘(·)’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성
 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장경준(2004:217)에서 ‘者’의 현토 양상도 『瑜伽師地
 論』 권 8 뒷부분에서(10장 이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였는데 다른
 구문들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42(-)]도 권5와 권8
 의 큰 차이 중의 하나이다. 한편 서민욱(2005)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내용 구
 성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구분	<유가05>	<유가08 1:01-14:08>	<유가08 14:09-18:19>	<유가08 18:20-끝>
(+)55(·)#	24	0		
(+)55(:)#	0	25		
(+)51(·)#	11	0	1	
(+)51(:)#	0	5(-18:19)		0

15) ‘愛’자에는 점토 [53(·),55(·)#54~55(·)]이 현토되었다가 뭉개어진 흔적이 보
 인다.

[21(·)]名[54(·)?]遠離猥法[53(·),51(·),4자합부]¹⁶⁾

B: 愛願[ホ]受持梵行[乙,x]故[ノ]名[下]遠離猥法[→,x |]

C: 愛願(→)ホ 梵行乙 受持x{故}ノ 名下 遠離猥法→x |

D: 愛願하여서 梵行을 受持하는 까닭으로 일컬어 遠離猥法이라고 한다.

E: 서원하여 맑은 행을 받아 지니기 때문에 추잡한 법을 멀리 여윈
다고 하나니,

<유가08 18:20>

A: 如是[34(/)]名[54(·)]爲正行清淨具足[53(·),+51(·),6자합부]

B: 如是[→ 1 乙]名[下]爲正行清淨具足[→,x |]¹⁷⁾

C: 是 如→ 1 乙 名下 {爲}正行清淨具足→x |

D: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正行清淨具足이라고 한다.

E: 이와 같은 것을 바른 행의 깨끗함이 완전하다고 하며,

<유가08 18:21>

A: 當知[51(·)]略義[33(·)?]卽在此[33~43(/),+11(·)]中[44(·),지시선
(/)]

B: 當知[|]略義[1]卽在此[→ 1 甲,丁]中[+]

C: 當(ハ) 知(→) | 略義1 卽 此 中+ 在→ 1 甲丁

D: 반드시 알아야 한다, 略義는 곧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인 줄.

E: 간략한 이치도 곧 이 안에 있는 줄 알아야 한다.

16) 장경준(2005)에서는 “[51~52(·)]”로, 서민욱(2005)에서는 “[51~52(·)#51(·)]”로 판독하였다.

17) 서민욱(2005:부록85)에서는 [+51(·)]에 대하여 ‘ノ ㄱ |’로 판독한 반면 앞에 같은 문맥에 현토된 수직 쌍점은 ‘x |’로 판독하였다.

<유가08 18:21-22>

- A: 又翻[역독선]妄語[34(·),11~21(-),42(·)]中[44(·)]可信[51(·),2자합부]者[23~33(·)]謂可委[42(\)]故[43(/),55(·)]
- B: 又翻妄語[乙,ヒ,七]中[+]可信[|]者[x入7]謂可委[ノㇿ七]故[ㄴ7ㄴ,ㄱ]
- C: 又 妄語乙 翻(ㄴ)ヒ七 中+ 可信(|)|{者}x入7 謂 委ノㇿ{可}七ㄴ7ㄴ{故}ㄱ
- D: 또 妄語을 뒤집는 가운데에서 可信이다 함은, 즉 말길 수 있는 까닭이며
- E: 또 거짓말과 반대되는 것 중에서 믿을 수 있다 함은 말길 수 있다 함이며,

<유가08 18:22>

- A: 可委[51(·),2자합부]{41~42(·)}者[23~33(·)]謂[33(·)]可寄託[42(\),43(|)]故[55(·)]
- B: 可委[|]者[x入7]謂[7]可寄託[ノㇿ七,xㄴ¹⁸⁾]故[ㄱ]
- C: 可委(|)|{者}x入7 謂7 寄託ノㇿ{可}七xㄴ{故}ㄱ
- D: 可委다 함은, 즉 寄託할 수 있는 까닭이며
- E: 말길 수 있다 함은 부탁하여 말길 수 있다 함이며,

<유가08 18:22-19:01>

- A: 應可建立[51(·),4자합부]者[23~33(·)]謂於彼彼違諍事[=42(·)]中[44(·)]應可[2자합부-역독선]建立[15(·),2자합부]爲正證[24(·),42(\)]故[43(|)¹⁹⁾,55(·)?]²⁰⁾

18) 앞 문장과 같은 문맥인데 앞에서와 달리 수직선으로 현토되었다.

19) 장경준(2004)에서는 앞에서와는 달리 故에 [43(|)]이 현토된 사실을 '故'를 부독자로 보는 논거 중 하나로 들었다.

- B: 應可建立[1]者[x $\wedge$ 1]謂於彼彼違諍事[7]中[+]應可建立[8]爲正證[3, 10 $\wedge$ 7]故[x $\sim$, 9]
- C: 應可建立(11) 1 { 者 } x $\wedge$ 1 謂 { 於 } 彼彼違諍事 7 中 + 建立(3) 8 正證 { 爲 } 3 10 $\wedge$ 7 { 應可 } 7 { 故 } x $\sim$ 9
- D: 應可建立이다 함은, 즉 彼彼違諍事의 가운데에 建立하여서 正證삼을 만한 까닭이며
- E: 세워야 하겠다 함은 그와 그가 여기면서 다투는 일 가운데서 세워서 바른 증거로 삼아야겠다 함이며,

<유가08 19:01-02>

- A: 无有虛誑[51(·), 4자합부]者[23~33(·)]於委寄[24(·), =42(·)]²¹⁾中[44(·)]不虛誑[43(1)]故[55(·)]不欺調[43(1)]故[51(·)]
- B: 无有虛誑[1]者[x $\wedge$ 1]於委寄[10 $\wedge$, 7]中[+]不虛誑[x $\sim$]故[9]不欺調[x $\sim$]故[1]
- C: 无有虛誑(11) 1 { 者 } x $\wedge$ 1 { 於 } 委寄 10 $\wedge$ 7 中 + 不虛誑 x $\sim$ { 故 } 9 不欺調 x $\sim$ { 故 } 1
- D: 无有虛誑이다 함은, 委寄하는 가운데에 不虛誑하는 까닭이며 不欺調하는 까닭이다.
- E: 거짓이 없다 함은 맡겨 놓은 것 안에서 거짓이 없고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가08 19:02-04>

- A: 此[42(·)]中[22(·), 42(·)]略義[22~32(·)]者[15~25(-), 23~33(·)]謂

20) 서: 虛誑(10 $\wedge$) 不x $\wedge$ 1 $\wedge$ 9 { 故 } 9 欺調(10 $\wedge$) 不x $\wedge$ 1 $\wedge$ 9 { 故 } 1

21) [42(·)] 옆에 각필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선이 있는데 만약 각필에 의한 것이라면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42(·)]에 대하여 ‘=’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顯[역독선]三種攝受[33~43(·)]—欲解攝受[31(·)]二保任攝受[31(·)]三作用攝受[31(·),34(·),51(·)]²²⁾

B: 此[七]中[3, 七]略義[11]者[尸, 入 1]謂顯三種攝受[印]—欲解攝受[11]二保任攝受[11]三作用攝受[11, 乙, x 1]

C: 此七 中 3 七 略義 11 {者}尸 入 1 謂 三種 攝受 印 — 欲解攝受 11 二 保任攝受 11 三 作用攝受 11 乙 顯 x 1

D: 이 가운데의 略義인 것은, 즉 세 가지 攝受이니, 첫째 欲解攝受와 둘째 保任攝受와 셋째 作用攝受를 나타내는 것이다.

E: 이 중에, 간략한 이치라 함은 세 가지 거두어 줄을 나타내나니, 첫째는 육해의 거두어 줌이요, 둘째는 보임의 거두어 줌이요, 셋째는 작용의 거두어 줌이다.

<유가08 19:05-06>

A: 復次法相差別建立[51(·)]者[23~33(·)]謂卽煞生[31(·)]離煞生[31(·)]等[51(·)]

B: 復次法相差別建立[1]者[x 入 1]謂卽煞生[11]離煞生[11]等[x 1]

C: 復次法相差別建立(11) 1 {者}x 入 1 謂 卽 煞生 11 離煞生 11 等 x 1²³⁾

D: 또 다음으로 法相差別建立이다 함은, 즉 곧 殺生과 離殺生 등인 것이다.

E: 법 모양의 차별을 세움이라 함은 산 목숨을 죽이는 것과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 따위이다.

22) 장경준(2005)에서는 “[51~52(·)]”로, 서민욱(2005)에서는 “[51~52(·)#51(·)]”로 판독하였다.

23) 或 {於}是處 3 + 親戚交遊 4 談話 4 等 11 {有} 4 3 住 11 3 ホ <유가26:09-14>, 愛味 11 慢 11 見 11 疑 11 无明 11 等 11 諸 隨煩惱 11 {之} 染汚 11 尸 所 乙 <유가16:09-16>

<유가08 19:06-08>

- A: 云何[34(·)]煞生[51(·),15(·)²⁴⁾]謂[33(·)]於他衆生[23(·),44(·)]起煞欲樂[34(·),+15~25(-),31(·),구결자(乙)]起[역독선]染汙心[34(·),+15~25(-),31(·)]若卽[21(·)]於彼[23(·),44(·)]起煞方便[34(·),+15~25(-),31(·)]及卽[21(·)]於彼[23(·),44(·)]煞究竟²⁵⁾[+15~25(-),31(·),42(·)]中[44(·)]所有[33(/),42(·)]身業[51(·)]
- B: 云何[乙]煞生[1,ノムコ]謂[1]於他衆生[ㄹ,+]起煞欲樂[乙,ノ尸,人]起染汙心[乙,ノ尸,人]若卽[ㄷ]於彼[ㄹ,+]起煞方便[乙,ノ尸,人]及卽[ㄷ]於彼[ㄹ,+]煞究竟[ノ尸,人,七]中[+]所有[ㄷ,七]身業[1]
- C: {云}何乙 煞生(11) 1 ノムコ 謂 1 {於}他 衆生 ㄹ+ 煞欲樂乙 起 ノ尸人 染汙心乙 起 ノ尸人 若 卽 ㄷ {於}彼 ㄹ+ 煞方便乙 起 ノ尸人 及 卽 ㄷ {於}彼 ㄹ+ 煞究竟 노尸人七 中+ 有 ㄷ 所七 身業(11) 1
- D: 무엇을 煞生이라 하는가? 즉 다른 중생에게 煞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에게 煞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에게 煞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身業이다.
- E: 무엇을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중생에 대하여 죽이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를 죽이는 방편을 일으키나니, 그를 죽이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몸의 업이다.

<유가08 19:08-11>

- A: 云何不與取[51(·),15(·)]謂於他[23(·)]攝[33(\\)]物[44(·)]起[역독선]盜欲樂[34(·),+15~25(-),31(·)]起[역독선]染汙心[34(·),+15~25(-),31(·)]{14(·)?}若卽[21(·)]於彼[23(·),44(·)]起盜方便[34(·),+15

24) 서민욱(2005)에서는 [+15(·)]로 보았다. 이하 마찬가지.

25) 이 ‘竟’자는 피휘자로서 마지막 획이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25(-),31(·)]及即於彼[23(·),44(·)]盜究竟²⁶⁾[+15~25(-),31(·),42(·)]中[44(·)]所有[33(/),42(·)]身業[51(·)]

B: 云何不與取[1,ノ今口]謂於他[ヲ]攝[ノ1]物[+]起盜欲樂[乙,ノ尸,人]起染汙心[乙,ノ尸,人]若即[ヅ]於彼[ヲ,+]起盜方便[乙,ノ尸,人]及即於彼[ヲ,+]盜究竟[ノ尸,人,七]中[+]所有[ノ1,七]身業[1]

C: {云}何(乙) 不與取(1) 1 ノ今口 謂 (於)他ヲ 攝ノ1 物+ 盜欲樂 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即ヅ (於)彼ヲ+ 盜方便乙 起ノ尸人 及 即 {於}彼ヲ+ 盜究竟ノ尸人七 中+ 有ノ1 所七 身業(1) 1

D: 무엇을 不與取라 하는가? 즉 다른 이가 가진 물건에 盜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것에 대해 盜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것에 대해 盜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身業이다.

E: 무엇을 주지 않는데 가지는 것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이에게 딸린 물건에 대하여 훔치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훔치는 방법을 일으키나니, 그를 훔치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몸의 업이다.

<유가08 19:11-14>

A: 云何[34(·)]欲邪行[51(·),15(·)]謂於所[역독선]不應[33~43(·),42(·)]行[42(\),33(/),지시선(/)]非道[53(·)]非處[53(·)]非時[53(·),24(\),44(·)]起習近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若即於彼[23(·),44(·)]起欲邪方便[34(·),+15~25(-),31(·)]及於欲邪行究竟²⁷⁾[+15~25(-),31(·),42(·),5자합부]中[44(·)]所有[33(/),42(·)]身業[51(·)]

26) 이 ‘寬’자는 피휘자로서 마지막 획이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27) 이 ‘寬’자는 피휘자로서 마지막 획이 없는 모양으로 나타나 있다.

- B: 云何[乙]欲邪行[1, ㄴㅇㅇ]謂於所不應[印, ㄷ]行[ㄴㅇㄷ, ㄴㅇ]非道[ㄷ]非處[ㄷ]非時[ㄷ, ㄴㅇ, ㅏ]起習近欲樂[乙, ㄴㅇ, ㅏ]起染汙心[乙, ㄴㅇ, ㅏ]若卽於彼[ㅇ, ㅏ]起欲邪方便[乙, ㄴㅇ, ㅏ]及於欲邪行究竟[ㄴㅇ, ㅏ, ㄷ]中[ㅏ]所有[ㅇㅇ, ㄷ]身業[1]
- C: {云}何乙 欲邪行(1) 1 ㄴㅇㅇ 謂 {於}行ㄴㅇ{應}ㄷㅇㅇ 不(矣)印 所ㄷ 非道ㄷ 非處ㄷ 非時ㄷㄴㅇㅏ 習近欲樂乙 起ㄴㅇㅏ 染汙心 乙 起ㄴㅇㅏ 若 卽 {於}彼ㅇㅏ 欲邪方便乙 起ㄴㅇㅏ 及 {於}欲邪行究竟ㄴㅇㅏㄷ 中ㅏ 有ㅇㅇ 所ㄷ 身業(1) 1
- D: 무엇을 欲邪行이라 하는가? 즉 행하여서는 안 되는 바의 非道이니 非處이니 非時이니 하는 것에 習近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것에 대해 欲邪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欲邪行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身業이다.
- E: 무엇을 음욕의 사된 행이라 하느냐 하면, 행하여서는 안 될 바의 길 아닌 데와 처소가 아닌 데와 때가 아닐 적에 가까이 하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음욕의 사된 행인 방편을 일으키나니, 음욕의 사된 행이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몸의 업이다.

<유가108 19:14-17>

- A: 云何妄語[51(·),15(·)]謂於他有情[23(·),44(·)]起覆想說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若卽[21(·)]於彼[23(·),44(·)]起僞證方便[34(·),+15~25(-),31(·)]及於僞證[44(·)]究竟²⁸⁾[+15~25(-),31(·),42(·)]中[44(·)]所有[33(/),42(·)]語業[51(·)]
- B: 云何妄語[一,ノ今口]謂於他有情[ヲ,十]起覆想說欲樂[乙,ノ尸,人]起

28) 이 ‘竟’자는 피휘자가 아니다.

染汙心[乙,ノ尸,人]若卽[ㄱ]於彼[ㄴ,+]起僞證方便[乙,尸,人]及於
僞證[+]究竟[ノ尸,人,七]中[+]所有[ㄴ,七]語業[1]

C: {云}何(乙) 妄語(11) | 노ㅅㅁ 謂 {於}他 有情→+ 覆想說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卽[ㄱ] {於}彼→+ 僞證方便乙 起
ノ尸人 及 {於}僞證+ 究竟ノ尸人七 中+ 有ㄴ,七 所七 語業(11) |

D: 무엇을 妄語이라 하는가? 즉 다른 有情에게 覆想說 欲樂을 일
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및) 곧 그에게 僞證 方便
을 일으키는 것과 僞證에 대해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語業이다.

E: 무엇을 거짓말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유정에게 생각을 숨겨 말
하리라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
으키어 곧 그것에 거짓으로 증명하는 방안을 일으키나니, 거짓
증명하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말의 업이다.

<유가08 19:17-20>

A: 云何[34(·)]離間語[51(·),15(·)]謂[33(·)]於他有情[23(·),44(·)]起破
壞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
若卽[21(·)]於彼[23(·),44(·)]起破壞方便[34(·),+15~25(-),31(·)]
及於破壞[44(·)]究竟²⁹⁾[+15~25(-),31(·),42(·)]中[44(·)]所有
[33(·),42(·)]語業[51(·)]

B: 云何[乙]離間語 | ,노ㅅㅁ 謂[1]於他有情[ㄴ,+]起破壞欲樂[乙,노
尸,人]起染汙心[乙,노尸,人]若卽[ㄱ]於彼[ㄴ,+]起破壞方便[乙,노
尸,人]及於破壞[+]究竟[노尸,人,七]中[+]所有[ㄴ,七]語業[1]

C: {云}何乙 離間語(11) | 노ㅅㅁ 謂[1] {於}他 有情→+ 破壞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卽[ㄱ] {於}彼→+ 破壞方便乙 起

29) 이 ‘竟’자는 피휘자가 아니다.

ノ尸人 及 {於}破壞+ 究竟ノ尸人七 中+ 有ソㄱ 所七 語業(ㄱ) ㄱ

D: 무엇을 離間語라 하는가? 즉 다른 有情에게 破壞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에게 破壞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破壞에 대해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語業이다.

E: 무엇을 이간질의 말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유정에게 깨뜨리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깨뜨리는 방편을 일으키나니, 깨뜨리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말의 업이다.

<유가08 19:20-23>

A: 云何[34(·)]麤惡語[51(·)]??,15(·)]謂於他有情[23(·),44(·)]起麤語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若即於彼[23(·),44(·)]起麤語方便[34(·),+15~25(-),31(·)]及於麤語[44(·)]究竟³⁰⁾[+15~25(-),31(·)?,42(·)]中[44(·)?]所有[33(/)?,42(·)]語業[51(·)]

B: 云何[乙]麤惡語[ㄱ,ノ尸人]謂於他有情[ㄱ,+]起麤語欲樂[乙,ノ尸人]起染汙心[乙,ノ尸人]若即於彼[ㄱ,+]起麤語方便[乙,ノ尸人]及於麤語[+]究竟[ノ尸人,七]中[+]所有[ソㄱ,七]語業[ㄱ]

C: {云}何乙 麤惡語(ㄱ) ㄱ ノ尸人 謂 {於}他 有情[ㄱ,+ 麤語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即 {於}彼[ㄱ,+ 麤語方便乙 起ノ尸人 及 {於}麤語+ 究竟ノ尸人七 中+ 有ソㄱ 所七 語業(ㄱ) ㄱ

D: 무엇을 麤惡語라 하는가? 즉 다른 有情에게 麤語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에게 麤語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麤語에 대해 究竟하는 것 가운데에 있는 바의 語業이다.

30) 이 '竟'자는 피휘자가 아니다.

E: 무엇을 추악한 말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유정에게 거친 말을 하겠다든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추악한 말을 하는 방편을 일으키나니, 추악한 말을 하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말의 업이다.

참고문헌

- 김성주(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6)』,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13-232.
- 김영옥(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土)의 해독 방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57-77.
- 남풍현(1999),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 박진호(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216-231.
- 서민욱(2004), 「『如』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75-220.
- 서민욱(2005), 『『유가사지론』 권5·8의 점토구결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재(2001), 『『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229-250.
- 이승재 외(2005), 『『瑜伽師地論』의 해독과 번역』, 태학사.
- 이승재·안효경(2001), 「각필 부호구결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성암본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115-145.
- 장경준(2002), 「점토석독구결 자료에 기입된 구결자와 대응 구결점에 대하여—『유가사지론』 권5,8을 대상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205-225.
- 장경준(2004가), 『『유가사지론』 점토 석독 구결 해독 연구(1)』,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192-212.
- 장경준(2004나), 「구결점의 현토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49-174.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 석독 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
점을 중심으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52-811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288-15]

E-mail: prefall1@snu.ac.kr

접수일자: 2005. 12. 10.

게재결정: 2006. 01. 25.

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Focusing on vol. VIII. 18:05–19:23—

Lee, Byeong-gi

This paper surveys the brief textual structure of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vol. 8, and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

*Key words: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黑吐口訣)